

‘소음분쟁’ 속 시원한 해결대책 없나요

생활소음 민원 급증 사회문제 심각...관련 법규·기준 미흡

당사자간 감정싸움에 법적 다툼까지...조정 전담부서 절실

아파트 입주자들이 KIA 타이거즈 구단 등을 상대로 생활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광주일보 29일 6면) 생활 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갈등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기구나 규정 등이 미흡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음분쟁의 경우 사소한 시비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양측을 중재해 분쟁을 해결할 ‘조정자’ 역할을 행정기관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9일 현재 광주시와 각 구청에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은 모두 955건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소음민원도 1569건에 이르는

등 지역민들의 주요 민원 항목에 빠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 소음 분쟁의 경우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확성기 및 관람객 함성(북구 임동)을 비롯한 광주 근공항 전투기 소음(광산구 송정동), 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동구 산수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남구 백운동) 등이다.

이외 개 짓는 소리·에어컨 실외기·층간 소음·아이 울음소리·주택 신축공사장 등 사소하게 비쳐지지만 해결되지 않아 갈등으로 이어지는 소음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배려보다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구 임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와 KIA 구단을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이 소음공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법적 규정과 기준을 따지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사람과 동물과 같이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신축공사현장 기계음 등은 규제 대상이지만 시간대별(주간·야간) 및 소음원(확성기·사업장)에 따라 규제기준이 각각 다르다. 구체적인 규제 절차나 처분도 법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음분쟁 대다수가 이해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

부되면서 소음분쟁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소음으로 일상의 삶이 흔들리는데도, 구제방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그나마 민원인 수가 많거나 소음피해에 따른 규모(1억 원 미만)가 클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제6조)에 따라 광주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소음 피해에 대한 위법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실상 있거나 마땅한 기구다.

올 들어 이남 현재 조정신청건수는 1건이며 지난해엔 2건이었다.

일각에선 소음공해는 개인의 평범한 삶을 앗아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만큼 관계기관이 법의 문제라도 적극 개입,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직업 있는데도 버젓이 실업급여 암채 수급자들

광주지방노동고용청

올들어서 545명 적발

조사 인력 모자라

적발사례 “빙산의 일각”

#1. 정모(53)씨는 순천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도 친형(55)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부산 건설현장에서 일한 점을 이용,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24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돼 48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2. 북모(여·52)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형 마트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을 물어내야할 처지다.

실업 급여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직자의 재취업 및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돕기 위해 보급생활자 등이 세 금처럼 매달 낸 돈으로 조성된 취지를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광주지방노동고용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45명으로, 이들이 타낸 금액은 2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516명)에 비해 5.6%, 부정수금액

(2억1400만원)도 10.7% 증가하는 등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탄 ‘가짜실업자’(76%·414건)가 가장 많았다. 이외 ▲소득 미신고(13.4%) ▲허위신고(2.6%)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허술한 관리가 한몫을 한다.

당장, 광주노동청만 보더라도 관할 지역의 부정수급조사인력은 9명(광주 5명·목포 2명·여수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점검해야 할 실업급여 대상 인원이 2만7744명(광주 1만4587·전남 1만3157명)으로 1명당 3082명을 맡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부정수급 여부를 감독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목포지청, 여수지청의 경우 피고용보험자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형편으로, 실제 부정수금액은 이번에 나타난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폐업 등 회사사정 때문에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실직자의 고용 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 90~240일간 아직 전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50%(1일 상한 4만원)가 지급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지그재그 운항 예인선 잠고보니

선장은 막무가내 음주측정 거부

목포해경, 불구속 입건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20분께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 앞바다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인천 선적 예인선 H호 선장 박모(50)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께 목포시 동명동 여객터미널에서 출항 신고 없이 출항, 오후 6시15분까지 30여 분간 운항을 하다 해경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갑지자(之)형으로 운항한다는 목포 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술 냄새가

나고 식당에서 술병이 발견되는 등 음주 운항이 의심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장은 10분 간격으로 진행된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5일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76%)로 운항한 혐의로 9.77t급 여선(연안자망) 선장 김모(59)씨를 적발한 바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3건, 올해 4건 등 해상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사와 항해사 등을 상대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해상 기름유출 사고 ‘줄행랑’ 선박 기관장 검거

목포해경, 기름띠 제거작업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고 오염 방지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목포 선적 80t급 예인선 ‘H호’ 기관장 지모(73)씨를 불붙여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목포대교 인근 해상에서 H호 주연료 탱크에 실려 있던 연료유(병커 A유)를 같은 선적 보조 탱크에 옮겨 싣던 중 연료유

114ℓ를 유출하고 방제 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사고 해역을 지난 선박 40척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다 H호 기관장에 병커 A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기관사를 추궁, 자백을 받았다.

한편 해경은 병커 A유가 유출된 3만 5000㎡ 해상에서 경비정 8척과 관공선 3척 등을 동원, 기름띠 제거작업을 벌였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안전불감’ 현장

2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철 구조물에 올라 위태롭게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편의점 수백만원 훔친 도둑 현장에 범행도구 놓고 나와 ‘덜미’



○편의점 전장을 훔고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60대 절도범이 현장에 놓고 온 범행 도구 때문에 덜미.

○29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서모(62)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2시 광양시 광양읍 장모(46)씨의 A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담배·상품권 등 320만 원 상당의 금품·물

품을 훔친 혐의.

○서씨는 A편의점과 맞닿은 건설사 사무실 유리창을 뜯어내고 들어간뒤 40~60cm 너비의 사무실 천장 틈새를 통해 기어가다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전기선을 자르고 침입,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에 대한 유전자 분석으로 서씨를 검거.

/광양=배영재기자 byj@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으로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 사정상 급매 - 1억 6천만원(8/3일까지)
-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 010-3605-5000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임대

현재, 뷔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커피/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5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 60평 분할 매매 - 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